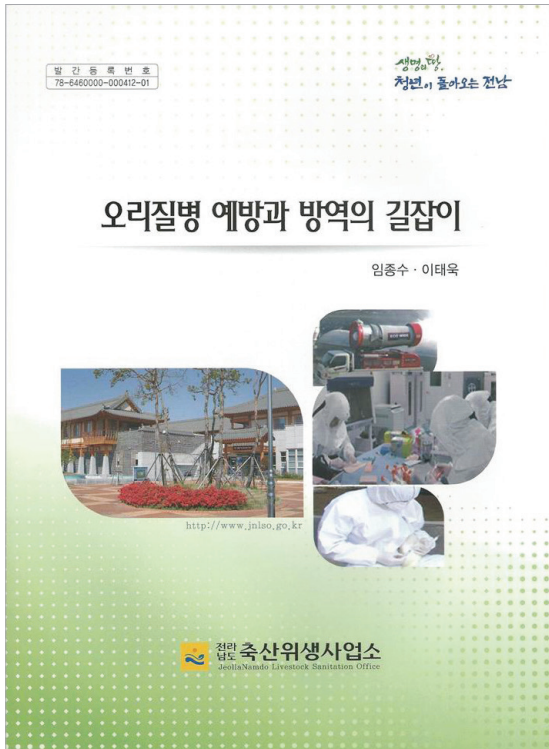


## 전라남도축산위생사업소, ‘오리질병 예방과 방역의 길잡이’ 책자 발간



전라남도축산위생사업소(소장 이태욱)에서 지난 2월 ‘오리질병 예방과 방역의 길잡이’ 책자를 발행했다. 방역담당 직원인 임종수 씨가 그동안 취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술했으며, 권용국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의학 박사와 마광하 한국오리협회 광주·전남도지회장이 감수했다. 발행된 책은 전남지역의 오리사육 농가 및 도업장, 방역기관 등에 무료 배포되었으며, 오리사육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의 : 전라남도축산위생사업소  
061-430-2140)

“살처분 비용,  
농가 부담은 축산 말살정책”  
축단협, “신고 기피로 질병 상재화 촉발”  
즉각 철회 촉구 성명

일부 지자체에서 가축 살처분 비용을 농가에 부담시키고 있는 것과 관련 축산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창호, 오리협회장)은 지난 1월 28일 성명서를 통해 축산 말살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축단협은 “최근 일부 지자체가 FMD 및 AI 살처분 비용을 농가에 부담시키고 있는데 이는 악성 질병 조기종식을 위해 정부의 방역대책에 순응하면서 오로지 자신의 가축을 지키기 위해서 혼신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전국의 축산농가와 업계의 엄청난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축단협은 축산 선진화라는 미명아래 중앙정부는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보상금을 감액하더니 살처분 비용마저 농가에 전가시키는 것은 ‘축산 말살정책’이라고 단정했다.

축단협은 “FMD나 AI는 1종 가축전염병은 무엇보다 농가의 자발적인 신고와 초동조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향후 발생 의심 농장 중 상당수가 신고를 꺼려 오히려 질병의 조기발견과 종식을 지연시키고 결국에는 질병의 상재화를 촉발시키는 재앙의 시작이 될 것이 분명하고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축단협은 1종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대한 책임은 명백하게 국가에 있는 상황에서 금번 조치는 국가의 책임을 전적으로 축산농가

에게 전가하면서도 악성질병 상재화를 초래할 수 있는 심대한 정책적 오류이자 전체 방역을 수포로 되돌리려는 처사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2015. 01. 30]

## 농촌진흥청, 닭·오리고기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발표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이 수도권 소비자를 대상으로 닭·오리고기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가구의 52.6%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닭고기를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축산물 소비 촉진 방안을 마련하고 연구 전략을 세우기 위해 실시했으며, 20세 이상 69세 이하 주부 500명과 1인 가구 성인 남녀 480명을 대상으로 면접과 누리망을 통해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가구의 52.6%가 주 1회 이상 닭고기를 먹고 있으며, 1인당 연간 12.45kg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62%는 3개월에 1회 이상 오리고기를 먹고, 1인당 연간 3.46kg을 소비하고 있었다.

닭고기 소비 방식으로는 '가정 내 요리' 25.9%, '가족 외식(배달 포함)' 25.5%, '가족 외 외식' 27.4%로 나타났으며 특히, 전체소비량 중 32.7%를 '닭튀김(치킨)'으로 소비했다. 오리고기는 '외식 소비'가 89.6%로 가정 내 소비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1인당 총 소비량 중 '훈제오리(43.6%)와 '구이용(34.7%)'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닭고기 구입 기준으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유통기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원산지', '냉장·냉동육 여부', '육질'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닭고기의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설문 조사했다. 소비자들은 맛과 관련된 품질보다 위생과 신선도를 중시했으며, 포장 유통 방식 개발과 구매할 때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등급 정보의 개선을 요구했다. 또, 친환경 닭고기의 생산과 간편 요리 제품에 대한 욕구도 높았다. 배달 소비와 외식 소비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닭 크기는 '적당하다'는 의견이 66.1%였으나, '작다'는 답도 30.3%에 달했다. 특히, 20대~30대 가정과, 미취학 및 초등·중등·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은 지금보다 큰 닭을 원한다고 답했다. 토종닭은 50대~60대나 성인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에 도움이 된다(24.9%)', '국내 전통 닭에 대한 신뢰(23.7%)' 등을 이유로 들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박경숙 기술지원과장은 "닭·오리고기는 구매 행태가 다양하고 소비 계층이나 삶 방식에 따라 선호하는 경향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대상에 따른 소비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품종 개발 등 지속적인 연구에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닭·오리고기 소비자 조사 결과' 보고서는 국립축산과학원누리집(<http://www.nias.go.kr>, 축산소식→축산경영정보)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2015. 02. 05]

### 농림부, AI 경계지역 밖 ‘이동제한’ 참여 오리 농가 지원 황주홍 의원 “나주·영암 100농가에 소득안정자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경계지역 밖 오리 농가에도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의원이 2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부는 지난 2월 6일 전남 나주·영암의 AI 경계지역 밖 오리 농가 100호에 대해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해 9월 24일 전남 영암에서 AI가 발생하자 10월 6일부로 AI 확산 우려가 있는 나주·영암 전역에 반입금지 등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고 11월 28일에 이를 해제했다.

당초 AI 경계 지역(10km)안에서 이동제한 조치를 하던 것을 일시적으로 시·군 전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경계지역 내 농가는 기존에도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았지만 일시적 확대 조치에 따른 경계지역 밖 농가들은 지원 근거가 없어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농림부의 이번 결정으로 AI 경계지역 밖의 오리 농가도 정부 지원을 받게 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0월 6일부터 11월 28일(54일간)까지 경계지역 밖에서 오리를 사육하던 농가로서 사육실적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이동제한 조치에 참여한 농가 100호(1만 3,000마리)를 선정해 지원한다.

황주홍 의원은 “농림부의 신속한 결정을 환영한다”라며 “AI로 고통 받은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 뉴스1 박중재 기자 [2015. 02. 08]

### 가축재해보험 원스톱 가입 서비스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모든 시도 및 시군구의 가축재해보험 지방비 지원절차를 일원화하였다고 밝혔다.

One-Stop 보험가입 서비스를 실시하여 축산농가에서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국가, 시도, 시군구에서 지원하는 보험료를 제외한 농가 부담 보험료만 납부하고, 지방비는 예산한도 내 선착순으로 신규계약 1회만 지원 등 농가에서 축협 등 대리점 1회 방문으로 보험가입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농가 편의를 높였다.

이를 위하여 가축재해보험 지방비 지원절차를 시도와 협의를 거쳐 통일하기로 하고, 보험사 전산망도 재정비하였다.

기존에 국가와 농가보험료로 구분하던 보험사 전산시스템을 국가, 시도, 시군구, 농가보험료로 세분화하고 지자체 지원기준을 사전 입력하여 보험료가 자동 계산되도록 정비하였다. 농가에서 가입신청 시 지자체 예산, 지원비율, 농가당 지원한도, 지원두수한도 등에 따라 농가부담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고 시군구에 다시 방문하여 지방비 지원요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과거 지방비 지원 대상자를 사전 선정하거나 선

착순 지원하는 등 지자체별로 상이한 지방비 지원 방식을 모든 지자체에서 선착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원화하였다. 다만 시군구에서 보조금 미반환 등 사유로 제외대상자로 통보한 경우 국비는 그대로 지원되나 지방비는 선착순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다.

지자체 예산 부족에 따라 많은 농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규 계약 1회에 한하여 지방비가 지원되도록 하고 중간에 계약변경으로 보험료가 증액이 된 경우에는 국비는 추가 지원되지만 지방비는 추가 지원되지 않도록 통일하였다.

이처럼 보험사 전산망 재정비와 지자체 지원절차 일원화로 시군구의 지방비 지원 대상자 사전 신청, 대상자 선정 후 대리점에 보험가입 신청, 시군구에 다시 지방비 지원 신청하는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1회 방문으로 보험가입이 되도록 개선하였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지방비 지원절차를 일원화하여 보험사내 지방비 전산화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가축재해보험도 전산화를 통하여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One-Stop보험가입 서비스를 실시하여 농가 편의를 높이게 되었다.

올해 3월부터는 농식품부 내 재해보험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험사 전산망과 연계하여 시도와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보험가입실적을 조회할 수 있게 되어 지방비 정산에도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 재기할 수 있도록 총 보험료 중 국가에서 50%를 지원하고 시도와 시군구의 실정에 따라 지방비를 20~40% 추가 지원하고 있어 실제 농가부담은 10~30%이다.

가축재해보험에 가입을 원하는 축산농가는 농

협손해보험(1644-9000), LIG손해보험(1544-0114)으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역 농축협, LIG손해보험 대리점 등에 방문하면 보험가입을 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가 지원 예산은 충분하지만 축산농가가 많은 지자체의 지방비 지원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므로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축재해보험 가입대상은 16축종으로 소, 돼지, 말, 가금류(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관상조), 기타가축(사슴양별토끼오소리)이 해당된다.

작년 가축보험은 1만1천여 농가에서 2억 1천8백만 마리를 가입하였고 주요 축종별로 닭 1억9천6백만 마리, 돼지는 864만 마리, 오리 816만 마리, 소 20만 마리가 가입하였다. 보험금은 4천 6백여 농가에 693억을 지급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 [2015. 02. 10]

## 소화가 잘 되는 '착한 밥상'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자신이 먹고 있는 음식을 점검하는 것이다. 의사들이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생활습관병이 있는 환자에게 늘 말하는 것도 식단 조절이다. 하지만 건강한 밥상은 단순히 만성질환자나 중증질환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질병을 예방하려면 위해 몸에 좋은 음식을 정량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사람이 몸에 좋은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관심을 가지는 요즘,

《착한 밥상》이라는 책이 출간됐다. ‘국민 약골’로 불리는 개그맨 이윤석의 아내 김수경 한의사가 저자라고 하니 왠지 더욱 눈길이 간다. 김수경 한의사가 몸속 노폐물은 제거하고 속은 편안하게 해 건강을 지켜 준다는 ‘착한 밥상’ 메뉴를 추천해 줬다.

착한 밥상의 기본 조건은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다. 소화가 잘 되면 체내 노폐물이 쌓이지 않아 장을 편안하게 한다. 김수경 한의사는 “원활한 소화를 위한 필수조건은 ‘소식’이라고 말한다. 과식하거나 각종 첨가물이 들어간 인스턴트 음식을 먹으면 소화효소의 소모가 많아져 소화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소화가 안 되면 장에 노폐물이 쌓여 독소가 발생한다. 장은 면역세포가 있는 장기라 독소가 쌓이고 유해 세균이 많아지면 면역력이 약해져 각종 알레르기 질환이나 염증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매끼 좋은 지방과 변형되지 않은 단백질, 소량의 탄수화물과 적당한 양의 채소를 섭취할 수 있는 밥상이 착한 밥상이다. 지방은 살이 찌거나 심혈관질환의 주범이라고 생각해 아예 먹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대해 김수경 원장은 “양질의 지방은 체내의 에너지 생성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매끼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단, 좋은 지방이라도 많이 섭취하는 것은 금물이다. 양질의 지방이라도 한꺼번에 체내에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소화가 잘 되는 밥상의 핵심은 소식을 해서 소화효소와 대사효소의 양을 맞추는 것이다. 35세가 넘어가면 효소 양이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소화효소의 양도 함께 줄어든다. 대사효소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효소인데,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소화효소를 많이 사용하면 상대

적으로 대사효소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면서 면역력이 약해진다. 소화효소와 대사효소의 균형을 맞추는 식단을 소개한다.



보리밥                      오리탕                      생들기름 숙주오이무침

소화효소와 대사효소의 균형 맞춘 밥상

## 보리밥

보리와 쌀의 비율은 5대5다. 보리는 12시간 이상 충분히 불려서 밥을 지어야 소화가 잘 된다.

## 오리탕

오리고기에는 필수지방산이 풍부하다. 필수지방산은 소화액의 구성 성분이다. 필수지방산을 섭취하면 소화액의 양을 늘려주기 때문에 소화를 원활하게 도와준다.

## 생들기름 숙주오이무침

들기름 역시 필수지방산이 많이 들어 있는 식품이라 소화액 분비를 촉진한다. 숙주나물 역시 소화효소인 아밀라아제가 풍부해 소화를 원활하게 도와준다.

## ※ 재료 및 만드는 방법 (2인분 기준)

**오리탕** 생오리 1/4마리, 마늘 3톨, 천일염, 후춧가루, 다진 파를 준비한다. 생오리는 배를 갈라 깨끗이 씻어서, 냄비에 물 2L를 넣고 생오리와 마늘을 넣는다. 물이 끓으면 중약불로 줄여서 1시간 동안 끓인다. 먹기 직전에 천일염, 후춧가루, 다진 파를 넣어 간을 맞춘다.

**생들기름 숙주오이무침** 숙주 250g, 오이 1개, 들깨 약간, 참기름 2~3방울, 생들기름 2큰술, 천일염, 다진 파·마늘을 준비한다. 끓는물에 숙주는 데치고, 오이를 어슷썰어 소금에 절인 후 물에 행군다. 행군 후 꼭 짜서 데친 숙주와 절인 오이를 넣고 참기름, 생들기름, 천일염, 다진파·마늘을 넣고 무친다.

▶ 헬스조선 김련옥 기자 [2015. 02. 10]

**오리 한그릇, 사랑 한가득**  
**포항 오리고기전문점 '육거리' 고철두 대표**



포항에서 어르신과 소외계층 등 이웃을 위해 '사랑의 점심'을 대접하는 사람이 있어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주인공은 포항 북구 양덕동에서 유황오리전문점 '육거리'를 운영하고 있는 고철두(37) 대표다. 고 대표는 2월 11일부터 오는 4월말까지 약 80일 동안 매주 2~3차례 양덕동을 중심으로 북구 지역의 어르신과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과 지역 자생·봉사 단체 회원들에게 사랑의 점심을 대접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요리요리 전문점인 '육거리' 양덕점 문을 열고, 연이어 문덕점 영업을 시작한 고 대표는 지역주민을 위해 어떤 봉사를 할까 고심하다

지역 이르신, 소년소녀가정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점심'을 기획했다. 봉사 첫날인 2월 11일에는 장량동 이·통장협의회를 비롯한 장량동의 20개 자생·봉사단체가 오전 동안 장량동 골목골목의 쓰레기 줍기 등 환경정화 활동 후 육거리에서 '사랑의 점심' 식사를 했다.

이들 회원들은 따뜻하고 열큰한 국물의 오리개장과 오리불고기를 비롯해 오리 목살로 만든 탕수육과 오리스테이크 등을 맛있게 먹고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2월 12일부터는 장량동을 시작으로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초청해 점심 식사를 대접했다. 점심 봉사에는 포스코 외주파트너사로 전기·조명설비 전문업체인 (주)성광(대표이사 한명희)이 큰 힘을 보탤다.

성광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버스를 무료로 지원했으며, 성광 임직원들은 어르신들의 앞으로 식사 보조 봉사 등 다양한 후원을 할 계획이다.

고 대표는 앞으로 약 3개월간 점심시간 사랑의 점심을 만들어 하루 50~100명, 총 5000여명의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등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점심을 대접할 생각이다.

고 대표는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다 식당을 운영하는 장점을 살려 '사랑의 점심'을 생각했다. 작지만 지역사회를 위해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 경북도민일보 손석호 기자 [2015. 02. 12]

## AI 예방적 살처분 비용 부담 논란

농가, 안성시 비용 부담 확약서  
제출요구에 당혹

인근 농장에서 발생한 AI로 인해 예방적 살처분을 받는 농가에까지 살처분 비용을 부담시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10일 안성에서 2만 수 규모의 오리를 사육하고 있는 이모씨는 안성시로부터 농장에서 150m 떨어진 오리농장에서 AI가 발생해 이동제한 및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명령받았다. 인근 농장에서 발생한 이후 2차례 검사를 실시했지만 모두 음성이 나왔다. 하지만 안성시는 발생농장과 거리가 가까워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취할 것을 해당 농장에 통보했다. 예방적 살처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살처분에 소요되는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성시는 살처분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장비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800여만 원을 부담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살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 씨는 살처분에 따른 보상비도 100% 주지 않으면서 살처분 비용까지 농가 부담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2015. 02. 13]

## 진천군의회 시관련 전액 국비지원 건의

진천군의회는 지난 2월 11일 제225회 임시회를

열어 조류인플루엔자(AI)로 살처분된 오리·닭에 대한 보상금의 전액 국비지원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그동안 방역과 살처분 등에 6억 원이 넘는 군비가 투입됐고, 앞으로 50만 마리가 더 살처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11년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의 20%를 지자체단체가 부담한다면 그에 따른 고통이 엄청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의회는 “방역과 살처분 사후 처리에 들어가는 경비만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이 어려워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피해 보상금과 방역 초소 운영비용 등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축산신문 진천 최종인 기자 [2015. 02. 13]

## 구멍 뚫린 AI, “녹차잎으로 예방한다”

앵커 : 경남 고성에 AI에 뚫리면서 도내 축산 농가들이 비상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녹차잎이 AI 예방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합니다. 최광수 기자입니다.



기자 : 함양군 수동면의 한 유향오리 농장입니다.



값싼 늙은 녹차잎을 가마솥에서 우려내고 있습니다. 늙은 녹차잎을 우려 낸 물은 사료에 섞어서 오리에게 주기도 하고 직접 우린 물을 주기도 합니다. 녹차의 '카데킨' 성분이 바이러스 감염률을 떨어뜨려 AI예방에 효능을 보이면서 보급이 늘고 있습니다.



이천기(녹차잎 보급농가) : 차 농가에서 큰잎은 옆차용으로 사용하거나 그냥 주기도 합니다. 구하기가 쉽죠. 비용도 비싸지 않습니다.

기자 : 녹차잎을 우려낸 물을 넣어서 만든 배합사

료는 오리들도 잘 먹습니다.

김문철(유황오리농장) : AI 때문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 (녹차잎 사료활용법을) 직접 배워서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기자 : 거창에서 닭을 기르는 농장주는 양계장 주변에 아예 녹차나무까지 심었습니다.

이호영(거창귀농연합회장) : 자연방사로 닭을 키우고 있는데 클로렐라 물을 먹이기도 하고 황토도 먹여 보기도 했는데 녹차잎 좋다는 얘기를 듣고 배우려고 합니다.

기자 : 하동녹차연구소는 지난 2012년 녹차 항바이러스제 특허등록까지 받았습니다. 주변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녹차잎이 비상이 걸린 축산농가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NN 최광수입니다.

▶ KNN [2015. 02. 22]

**“쥐 박멸로 AI 차단하자”  
충북도, 이색 예방대책 추진**

경기·충남 일대에서 기승을 부리는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충북 음성에까지 퍼진 가운데 충북도가 '쥐잡기'라는 AI 예방 이색 대책을 내놨다.

철새뿐만 아니라 AI 바이러스 전파 매개체인 쥐를 철저히 잡아 AI 확산을 막자는 얘기다.

충북도 방역대책본부의 분석대로라면 쥐잡기는 이색 대책은 수박 농사를 짓던 밭이나 논 한가운데 닭·오리 축사가 널려 있는 진천·음성 지역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에서



는 231개 농가가 1천127만 마리의 닭을, 118개 농가가 137만 마리의 오리를 사육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닭의 51.1%(577만 마리), 오리의 51.2%(70만 마리)가 음성 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다. 진천 지역의 닭과 오리도 각각 전체의 28.4%(320만 마리), 28.5%(39만 마리)에 달한다. 음성과 진천의 수박 재배 농가들이 연작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비닐하우스를 이용, 닭·오리를 사육하면서 가금류 마릿수가 많아졌을 것으로 도 방역대책본부는 보고 있다. 물론 벼 재배 농가들도 수익성이 좋은 가금류 사육에 뛰어들다 보니 두 지역의 논 한가운데에도 닭·오리를 사육하는 비닐하우스 축사가 즐비하다.

문제는 벼 낱알 등의 곡식이 떨어져 있는 논밭에 AI에 감염된 철새가 내려앉을 수 있고, 이 바이러스에 노출된 들쥐가 가금류 농장에 숨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AI가 발생했거나 닭·오리 출하를 마친 농장이 소독 작업에 나설 경우 그곳에 살던 쥐가 이웃 농장으로 서식지를 옮겨가면서 AI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도 있는 일이다.

도 방역대책본부는 이런 점을 감안, 23일 시·군 방역협의회를 열고 살처분 작업 후 쥐잡기를 병행할 것과 논밭에 축사가 있는 농가는 쥐잡기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물론 닭·오리를 같은 날 입식했다가 한꺼번에 출하하는 ‘올인·올아웃제’를 확대할 것과 입식 때는 반드시 방역 당국에 사전 신고할 것을 이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닭·오리가 AI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면 자칫 살처분에 따른 손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하시기를 앞당기는 데 적

극 동참해 달라고 지시했다.

도 방역대책본부의 한 관계자는 “도내 구제역은 마무리되는 분위기”라며 “방역 시스템을 AI 차단에 집중시켜 지난해 초 도내를 휩쓴 AI의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2015. 02. 23]

### “닭이나 오리나” 중국인이 춘제 연휴 가장 즐겨 먹은 음식은?

중국인들은 설 연휴 쇼핑과 발마사지를 가장 즐겨하며, 닭고기 조림요리인 ‘싼베이징’과 오리구이인 ‘카오야’를 가장 즐겨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최대 소셜커머스업체인 다중텐핑이 설 연휴를 맞이해 내놓은 중국인의 ‘실시간 춘제(음력 설) 풍속 지도’에서 공개된 내용들이다.

다중텐핑에 따르면 2월 23일 오후 5시 기준 중국 춘제 연휴기간 전국적으로 중국인이 가장 즐겨먹은 음식은 싘베이징으로 나타났다. 싘베이징은 청주, 간장, 돼지기름 세 가지를 넣고 조리된 닭고기 요리로 중국인들이 평소 즐겨먹는 음식이다. 오리구이와 양꼬치가 그 뒤를 이었다.

중국인이 가장 즐겨 하는 활동은 쇼핑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발마사지와 호텔 숙박, 커피마시기, KTV(노래방)출입 등이 이었다. 다중텐핑은 지난 2월 17일부터 중국인이 즐기는 음식과 활동을 전국과 지역별(34개 성급 행정지역)로 나누어 분석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지역별로 즐겨가는 음식점, 쇼핑센터,

마사지 업소 등 구체적인 정보도 공개해 중국인의 설 연휴 행동패턴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다중텐핑이 지난 12년간 모은 수 억 명의 이용자 행동패턴 정보를 모은 빅데이터를 분석해 얻어낸 결과물이다. 지난 해 4분기 기준 다중텐핑 월 평균 이용자수는 1억9,000만 명으로 한 달 평균 평가글이 6,000만 건에 달하며 등록업체 수는 1,200만 개가 넘는다.

▶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2015. 02. 24]

## 충북서 13번째 AI 발생 총 31만여 마리 살처분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육용 오리 사육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확인됐다.

도 방역대책본부는 2월 27일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 농장의 시료를 채취, 검사한 결과 전날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방역대책본부는 이 농가의 오리 4천980마리를 모두 살처분했다. 지난 2월 21일 이 지역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양성 반응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13번째다. 살처분된 닭·오리는 31만319마리에 달한다. 도 방역대책본부는 이 농가를 중심으로 이동제한 조치한 뒤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2015. 02. 27]

## 충북도, 道전역 오리농가 AI 일제검진

충북도는 2월 26일부터 3월 4일까지 일주일간 도내 118개 오리 농가(137만1806마리)에 대한 일제검진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일제검진은 잠복 감염 개체 조기 발견을 위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오리는 AI 증상 발현이 약해 조기 발견이 어렵다. 특히 음성군 맹동면 오리 농가에서 확인된 AI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점을 감안, 감염 분포를 보다 정확히 파악해 방역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도는 축산위생연구소, 시군, 도내 6개 계열화 사업자 등에 업무를 분배하는 등 일제 검사 추진 체계를 구축했다.

도 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AI는 구제역에 비해 전염속도가 늦고 주로 접촉에 의해 전염된다”면서 “농장 출입차량과 축사 내외부를 소독을 철저히하면 바이러스 유입을 막을 수 있는 만큼 동요하지 말고 방역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충북 오리 농가 수는 음성이 24농가(70만2177마리)로 가장 많고 총주가 24농가(4만5018마리)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청주와 진천은 각각 18농가(15만4206마리)와 16농가(38만9411마리)가 있다.

▶ 뉴시스 이병찬 기자 [2015. 02. 27]